익산시, 동남아 관광시장 '진출'

말레이시아 현지 관광설명회… 맞춤형 관광전략 홍보

익산시가 정부의 해외 관광객 3000만명 유치 목표에 발맞춰 동남아 관광시장을 겨냥한다.

시는 K-드라마, 영화 속 유명 스타들의 촬영지인 익산교도소세트장을 비롯한 '세계유산 백제유적지구, 야간경관 등 K-콘텐츠관광으로 본격적인 동남아 관광객 유치 마케팅에 나섰다.

시는 전북도 및 13개 시군과 함께 1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파빌리온 호텔에서 여행사, 관광 관련 업계 및 유관 기관 등 약 150명을 대상으로 관광 홍보를 위한 상담 및 설명회 'K-전북에 온(on) 관광전'을 개최했다.

K-전북에 온(on) 관광전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코로나 19 이후 3년 동안 경직되어있었던 외국인 관광객 및 단체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지여행사와 1대1 상담과 관광설명회, 상담교류회에서는 B2B 상담회를 통해 다양한 관광지와 시티투어, 관광택시와 같은 특색있는 관광 프로그램 등 차별화된 여행상품 홍보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특히 관광설명회는 익산시 관광자원 설명 및 홍보영상 상영과 관광지 관련 퀴즈 등을 진행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러닝맨, 펜트하우스, 신과 함께' 등 한해 20여편을 배출하는 영화?드라마? 유튜브 촬영지이자 XR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익산교도소세트장을 비롯해 서동선화 사랑이야기와 백제문화를 엿볼수 있는 세계문화유산, 야간 관광자원 등은 최신 K관광 트렌드를 잘 반영해 인기를 끌었다.

16일에는 말레이시아 주요 현지여행사를 직접 방문해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익산시 시티투어' 등 맞춤형 여행상품 및 관광전략 등을 적극 알린다.

특히 동남아 지역 '우기'(雨期)와 겹치는 12월~2월은 동남아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현지 여행사들을 통한 단체 관광객 유치 등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한국관광공사 쿠알라룸푸르지사(지사장 양경수)를 방문해 말레이시아 방한 관광시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익산 관광자원을 집중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K-콘텐츠 가득한 관광도시로 익산관광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수 있었다"며 "이번 관광설명회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2023 익산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겨울철 도로 설해대책 본격 추진

제설민원 대처 위해… 제설장비 45대 · 제설재 1370여톤 확보

익산시가 겨울철 주민 통행 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한 겨울철 도로 설해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도로관리상황실을 운영하며 사전 준비체계를 확립하고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강설시 지역 제설대상 도로 18개 코스 91.1km 구간의 빈틈 없는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45대(덤프 9대, 백호우 2대, 더블캡 3대, 모래살포기 14대, 제설기 14대, 기타3)와 염화칼슘 60톤, 소금 1,113톤, 친환경제설재 200톤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특히 상습 결빙지역인 모현대교외 5개소에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해 읍·면 지역 간선도로와 동 지역 교량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제설작업을 실시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가 밀집지역, 마을안길과 골목길 등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문화발전 모색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발전의 힘'으로 주목했다.

센터는 '익산문화도시의 미래를 묻는다' 릴레이토론회 세 번째 주제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익산 문화도시 활성화 방안 시민토론회'를 15일 익산 모현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의미와 지역발전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책목표와 활용방안 △고향사랑기부제 타시군 동향과 우수사례 △익산문화도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 으로 진행됐다.

영상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병도 국회의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발의 배경과 의미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한 의원은 "기부금액 한도액 500만원 규정을 삭제해 자유로운 모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자는 고향으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관계 인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두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은 일본의 고향납세제 최근 동향을 소개하며 "기부자역에 관심과 방문 가능한 답례품 발굴로 지역 브랜딩 연계와 문화도시, 도시재생 등 지역발전 정책을 모색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제언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부소장은 지자체가 해결해야 할 프로젝트를 만들어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기부자를 모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원도연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문화예술 증진과 시민참여 등 문화도시 사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재정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지난 15일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케익 만들기 요리교실'이 큰 인기를 끌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만들기 '인기'

익산 음식 · 식품교육문화원, 청년공유주방 이용 시민

익산시가 연말을 맞아 지난 15일 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한 '크리스마스 케익 만들기 요리교실'이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 요리교실은 KTX 익산역 앞 익산시 음식·식품 교육문화원 내 운영중인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의 시범운영과 더불어 이뤄졌다.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을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리뷰이벤트로 선정한 6개 팀 14명이 케익만들기에 참여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시민들이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기획된 '크리스마스 케익만들기'는 2단으로 구성된 케이크 시트, 짤주머니에 담긴 생크림과 케이크 토퍼 등으로 나만의 케익을 만들어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먹거나 선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한 참여자는 "청년 창업가를 응원하고, 케익도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청년공유주방 운영자들이 잘되고, 이런 이벤트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교육이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음식식품교육문화원과 청년공유주방을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 개정교회 쌍천카페, 희망나눔캠페인 동참

군산시 개정동은 개정교회(목사 최용준)가 15일 교회내 '쌍천카페' 커피숍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개정교회 내에 있는 '쌍천카페'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작은카페를 운영해 커피 및 붕어빵 등을 구워 판매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며 훈훈한 정을 더해주고 있다.

카페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교회 성도는 "카페 수익금이 우리 개정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면서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숙진 개정동장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해 주신 개정교회 쌍천카페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역과 지역민을 섬기는 성도들의 정성을 담아 기탁한 성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2일 군산 동광교회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성금 150만원을 개정동에 기탁하며 2023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순조'

군산시가 지역 불균형과 소외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서군산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동군산 지역에 치우쳐 있던 체육 인프라시설을 서군산 지역으로 확장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북동 3350번지 일원에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서군산 복합체육센터는 부지 3만4,795㎡, 연면적 8,452㎡, 지하1층/지상3층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특히 서군산 복합체육센터에는 실내수영장(25m 8레인), 다목적 체육관, 부대 편의시설 등 체육시설 불균형 및 소외감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민 생존수영 교육공간을 조성해 수상사고에 대처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롯데몰군산점, 드림스타트 아동에 겨울나기물품 전달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롯데몰 군산점(지점장 양남균)이 지난 14일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겨울이불 13채(1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롯데몰 군산점 사랑나눔봉사단은 겨울철을 대비해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혹한기 위기에 노출 위험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마다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양남균 지점장은 "어려운 경기에서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정성껏 준비한 이불로 아이들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건실 아동청소년과장은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도 아동들에게 관심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군산=김판곤기자